

창설자 영성 소논문

방유룡 신부의 '침묵'을 통한 '영성적 정결'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25년 종신선서 예정반

부이 티 쩌옌(BUI THI QUYEN) 마리아 수녀

2025년 12월

목차

I. 시작하는 말

-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2. 연구 범위와 방법
- I.3. 선행 연구 분석

II. 이론적 배경: 정결의 신학적 이해

- II.1. 정결의 개념
- II.2. 수도생활에서의 정결

III. 방유룡 신부의 영성적 배경과 '욕 개념' 분석

- III.1. 방유룡 신부의 생애와 영성
- III.2. 방유룡 신부의 '욕(慾)' 개념과 영적 구조

IV. 침묵 영성: 전통적 이해와 방유룡 신부의 심화

- IV.1. 기독교 전통에서 본 침묵
- IV.2. 방유룡 신부의 침묵 영성

V. 침묵과 정결의 상호 관련성: 영성적 통합

- V.1. 침묵이 사욕을 정화하는 방식
- V.2. 정결을 가능하게 하는 다섯 가지 침묵의 형태(완덕오계)
- V.3.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의 영성

VI.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과 결론

- VI.1. 현대인의 영성: 침묵과 정결의 요청
- VI.2. 수도자와 평신도를 위한 정결 실천의 가능성
- VI.3. 종합 결론 -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침묵과 정결의 여정

VII. 끝마치는 말

1. 시작하는 말

I.1. 연구 배경 및 목적

어렸을 때부터 나는 복음 속 ‘참행복’(마태오 5,3-12)의 말씀을 유난히 사랑했다. 특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오 5,8)라는 구절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내 마음은 순수했고,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주님의 현존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수도자의 길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하였고, 주님과 일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 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수도생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주님과 거리감이 멀어지고 있다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릴 적 느꼈던 뜨거운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성소 자체가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기도 했다. 기도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사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내게 마음을 다오. 내 안에 머물러라. 나와 일치하라.”고 부르셨지만, 나는 그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다.

종예반을 지내며 보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특히 내 마음이 분주하여 주님이 머무실 공간조차 비워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렬히 인식하였다. 바로 그 시기에 접하게 된 창립자 방유룡 신부님의 ‘침묵’에 대한 글은 나의 내면을 다시 흔들어 깨웠다. 신부님의 침묵 영성은 단순한 수행 지침이 아니라, 영혼을 밝히는 빛이었다. 그 글을 통해 나는 평화를 되찾았고, 침묵을 더 충실히 실천하며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점차 맑아지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현존이 가까워졌고, 주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다. 주님과 일치한다는 것은 곧 정결의 삶을 사는 것이며, 정결은 단순한 서원의 준수가 아니라 하느님으로 가득 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유의 표현이라는 것임을.

방유룡 신부님께서 정결을 직접 길게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침묵 영성 안에서 정결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였다. 정결은 억제가 아니라, 마음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자유이자 사랑의 상태였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 과잉과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의 내면이 끊임없이 분산되고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침묵할 공간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잃고, 존재의 중심마저 외부 자극에 흔들리는 위기를 겪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가톨릭 수도 전통이 오래도록 품어온 ‘침묵’과 ‘정결’의 영성이 단지 고행의 수단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내면의 회복과 자기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값진 영성임을 다시 깨닫게 한다.

이러한 개인적 여정과 시대적 문제의식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방유룡 신부님의 침묵 영성 안에서 발견한 정결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본 논문은 신부님의 침묵 영성에 드러난 정결의 삶을 영성학적으로 고찰하고, 정결의 본질과 침묵과의 내적 연관성, 그리고 오늘날 수도자와 신앙인에게 주는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시도가 아니라, 종신서원을 앞둔 수도자로서 드리는 기도이자 고백, 그리고 하느님께 다시 마음을 온전히 드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방유룡 신부의 침묵 영성을 통하여 ‘영성적 정결’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방 신부의 침묵 영성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문헌적 범위**는 방 신부의 저술·강의록 『영혼의 빛』을 1차 문헌의 중심으로 하고, 국내 연구서·논문·가톨릭 교도권 문헌 등 2차 문헌을 포함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방유룡 신부의 저서와 강의록, 그리고 그를 증언하는 주변 자료들을 바탕으로 침묵 영성을 탐구하고, 이를 정결이라는 주제와 연결한다. 둘째, 가톨릭 영성 전통과의 비교를 통해 방 신부 영성의 특징을 밝히는 비교 영성학적 접근을 적용한다. 셋째, 침묵을 통한 정결이라는 주제의 상징성과 영적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 신학적 해석학을 사용하여 그의 영성적 정결의 본질을 해석한다.

1.3 선행 연구 분석

방유룡 신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침묵 영성’ (이숙자 수녀, 최현식 신부, 이은봉 교수, 박수미 리타 수녀, 이보라 보나 수녀, 손보람 마리아 수녀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방유룡 신부님의 정결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들은 주로 ‘방유룡 신부의 영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정결의 삶’의 차원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방유룡 신부의 영성을 보다 통합적이고 심화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길이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정결의 신학적 이해

Ⅱ.1. 정결의 개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서 말씀에 근거하여 “성화에의 보편적 성소”를 전하였다.¹⁾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형태나 조건에서든지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불리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마음과 정신과 뜻과 힘을 다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마태 22,37-39)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완전하심 같이 완전해지고(마태 5,48),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애덕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여정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소에 따라 생활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도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데 있다. 이러한 성화에 도달하기 위한 특별하고도 특권적인 길이 바로 정결, 청빈, 순명의 세 복음적 권고이다. 이 세 권고는 애덕의 완성을 지향하며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정결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응답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의의를 지닌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수도자들에게 정결의 삶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 덕의 가치와 그 실천 방식에 대한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에 수도자들이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²⁾ 조남희(1995)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회가 가르치는 정결 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더 나아가 방유룡 신부의 침묵 영성을 통해 정결 덕을 실제로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Ⅱ.1.1. 정결의 일반적 개념

(1) 전통적 개념에서의 정결(貞潔)

정결(貞潔)이란 말은 곧을 ‘정’(貞)과 깨끗할 ‘결’(潔)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조(貞操)가 곧고 행실이 결국하여 깨끗함을 의미한다. ‘정조’란 여자의 바르고 곧은 절개나 이성관계(異性關係)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을 지칭하며, ‘결곡한’이란 말은 얼굴의 생김새나 마음씨가 여무져서 빈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정결’이란 부부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의 맑고 깨끗함이 용모와 행위에서까지 표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결’은 미혼녀의 동정(童貞)과, 기혼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주로 여성의 육체적인 정절(貞節)

1) 교회 5장

2) 조남희, 1995, “수도생활을 관점으로 한 정결에 대한 한 연구”, pp1.

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정결은 여성만의 육체적인 정결을 실천하는 것은 가부장 제도와 남존여비 사상과 관련이 있다. 정결은 모든 부덕(婦德) 중 가장 근본적인 덕이며 실천윤리로서 철저히 제도화되고 교육되어 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정결’은 인격적이고 육체와 정신적인 정결이다.³⁾

(2) ‘Chastity’의 의미와 영성신학적 해석

‘정결’로 번역되는 영어의 ‘Chastity’는 라틴어의 ‘Castitas’에서 유래된 단어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정결함이 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성생활과 관련하여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성교를 거부하는 성욕의 절제 뿐 아니라, 모든 성적인 행위를 자발적으로 금욕하는 독신생활의 동정성까지 포함한다.

둘째,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 의식 자체의 깨끗하고 순수한 외적 상태를 말한다.

셋째, 장식물이나 사치를 하지 않는 외모의 순수하고 고상한 모습이나 무절제와 문란함을 물리친 내적인 정숙함과 조출한 상태를 뜻한다.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정결은 성생활에서의 순결뿐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도덕적 정확, 외적 의식과 내적 상태의 순수함, 과도한 장식과 사치에서 벗어난 내적·외적 조화를 포함한다. 정결은 성적 절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와 사고에서의 덕과 순수함을 강조한다.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성이 본래 선하나 잘못 사용될 경우 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성적 절제는 성화와 인간의 도덕적·영적 성숙과 직결된다. 즉, 정결은 성적 덕목 이상으로, 인격 전체를 하느님 앞에서 조화롭게 세우는 영적·도덕적 능력이다.

II.1.2. 성경에서 본 정결

(1) 신약의 윤리적 정결

예수께서는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4)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참된 정결은 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성 범죄인들에게 죄를 비판하시기보다 그들에게 내적인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자비를 베푸셨다(루카7,36-50). 그러나 범죄 행위 자체를 인정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음과 이혼의 뜻을 더욱 철저히 규정화 시키셨다.⁵⁾ 이것은 성을 올바른 행사와 정결, 그 실현을 위한 조정과 절제가 인

3) 조남희, 1995, “수도생활을 관점으로 한 정결에 대한 한 연구”, pp.4 참조.

4) 조남희, 1995, “수도생활을 관점으로 한 정결에 대한 한 연구”, pp.5 참조.

5) 부부의 정결(마태 5,27-28, 31-32; 19,9). 부부의 정결의 범위(마르 10,11-12; 루카 16,18). 남편의 정

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전 인격적인 경신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성화(2코린 7, 1)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혼과 육신의 구원으로 이제 인간의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진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이상적 절정에 까지 공양되었다(1코린 6,13-20). 즉 인간의 육신은 하느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궁전’(1코린 6,19)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육신은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과 예배의 의무를 영혼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기에 성적 자제와 조정은 그 자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1테살 4,3)와 성화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결은 개인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코린 6,15-17)이므로 성범죄는 다른 죄와 근본적 차이를 이룬다.⁶⁾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정결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로마 13,9-10).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윤리적인 정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마태 5, 8)로서 자신 안에 예수의 적극적인 현존이 필요하며 그때 비로소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화된다(요한 15,3; 13,10).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모든 희망을 두는 성화(요한1,3)를 통해 새 인간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의 성적인 절제와 내적인 순결, 마음과 영혼의 정결을 내포하는 새롭고 적극적인 정결의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예수께서는 성의 올바른 행사와 정결, 그 실현을 위한 조정과 절제가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전 인격적인 경신과 성화임을 가르치신다. 그리하여 정결은 인간의 성적인 절제와 내적인 순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기는(필립 4,8)마음과 영혼의 정결을 포함한다(마르 7,14-23; 마태 15,10-20). 이러한 정결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성령의 활동과 그 열매이다(갈라 5,23; 데살 전 4,3-8).⁷⁾ 신약에서 정결은 성적 절제, 내적 정화(순결) 와 하느님과의 일치로 구성되는 적극적 영적 덕성이다.

(2) 신약의 영적·관계적 정결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정결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로마 13,9-10).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윤리적인 정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마태 5,8)로서 자신 안에 예수의 적극적인 현존이 필요하며 그때 비로소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화된다(요한 15,3; 13,10). 즉 그리스도에

결(마르 10,11). 혼인의 불가해소성(마태 19,6; 5,28).

6) 성적인 죄는 행위의 대소와 관계없이 인간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치므로 성의 남용(동성애, 근친상간, 매음, 외설행위)을 경고하고 죄악시한다(로마 1,24; 갈라 5,14; 골로 3,5; 테살 전 4,3; 로마 6,19; 코린 후 12,2).

7) 조남희, 1995, “수도생활을 관점으로 한 정결에 대한 한 연구”, pp.13 참조.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모든 희망을 두는 정화(요한1,3)를 통해 새 인간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의 성적인 절제와 내적인 순결, 마음과 영혼의 정결을 내포하는 새롭고 적극적인 정결의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예수께서는 성의 올바른 행사와 정결, 그 실현을 위한 조정과 절제가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전 인격적인 경신과 성화임을 가르치신다. 그리하여 정결은 인간의 성적인 절제와 내적인 순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기는(필립 4,8)마음과 영혼의 정결을 포함한다(마르 7,14-23; 마태 15,10-20). 이러한 정결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성령의 활동과 그 열매이다(갈라 5,23; 데살 전 4,3-8).⁸⁾ 신약에서 정결은 성적 절제, 내적 정화(순결)와 하느님과의 일치로 구성되는 적극적 영적 덕성이다.

II.1.3. 교부들의 전통에서 본 그리스도교적 정결 이해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훌륭히 통합되어 있음과 그 때문에 육적이고 영적인 실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적 통합을 뜻한다.” 정결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받아들인다. 정결은 사람을 자기중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 증여를 실천하는 법을 안다. 정결은 조화로운 인격을 길러 주고 인격을 성숙시키며 내적 평화로 채워 준다. 정결은 다른 사람들과 이기적 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인격의 관계를 맺게 한다. “정결은 사랑을 이기주의와 공격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신적 힘이다. 정결이 약화되면 인간의 사랑은 더 이상 자기 증여가 아닌, 쾌락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것으로 변한다.” 정결은 윤리덕의 하나이다. 정결의 덕은 인간의 성질서를 수호하는 윤리적 능력이다. 정결의 덕은 부당한 성적 욕구나 쾌락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한결 더 높은 덕이다. 정결의 참된 본질은 성적 신비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그것을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결은 우정으로 피어난다. 동성이나 이성 사이에서 발전된 우정은 모두에게 큰 선익을 주고 영적인 친교로 발전한다. 윤리덕의 하나인 정결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며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이기도 하다. 성령께서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순결을 본받게 하신다.⁹⁾

II.1.4. 정결과 관련 덕목들의 신학적 관계

절제, 독신, 동정은 모두 정결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정

8) 조남희, 1995, “수도생활을 관점으로 한 정결에 대한 한 연구”, pp.14 참조.

9)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24-25 참조.

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 절제(Temperantia)

절제(Temperantia)는 라틴어 ‘temperare’ (절제하다), 즉 ‘제어하다, 간추리다, 조절하다, 억제하다, 제한하다’를 포함한다. “절제의 덕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다.” 절제 덕의 고유한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욕, 절제, 분수, 냉정함, 극기 등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순결은 우리가 참된 자신이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열리는 목표로 한다. 정결의 덕은 절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절제 없이는 정결의 덕은 존재할 수 없다. 정결은 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성의 질서 회복과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인 경신(敬神)행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결은 육체적인 관능성의 영역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한다.¹⁰⁾

(2) 동정(Virginity)

일반적으로 동정성은 이성과의 성행위를 체험하지 않은 신체적인 순결 상태와 이성을 상대로 하여 성적 쾌락에 의지적으로 동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봉헌된 동정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충실하게 사랑한다는 점이다. 동정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으로 기초되고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적인 자기 증여의 표현으로서 동정을 사셨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마태19,12)고 말씀하셨다.

동정생활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정결이다. 정결이 몸과 마음의 깨끗함을 이야기 한다면 동정생활은 정결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또 실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영구적인 정결로 영신적인 덕행이고 몸과 마음,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봉헌된 독신이란 말도 동정성과 같은 의미이다.¹¹⁾

(3) 독신(Celibacy)

독신이란 보통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혹은 결혼을 포기한 사람의 신분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종교 영역에서는

10)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25-26 참조.

11)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27 참조.

합당한 종교적 이유와 목적으로 이성과 애정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분 상태를 의미한다.

수도자와 성직자의 독신은 예수님의 독신을 따름이다. 그것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전적인 헌신을 뜻한다. 이러한 독신은 그리스도교적 하나의 새로운 질서의 실재이다.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자유롭다. “현세적인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독신자들은 사람이 현세에서는 자기 인생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없다는 것과 사람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더 위대한 인생으로 불리었다는 진리를 훌륭하게 증거하고 있다.”¹²⁾

II.1.5. 정결의 실천과 영적 열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결한 삶에 대한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례 때 정결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의 정결의 모범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정결은 꼭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정결은 각 개인의 다양한 생활 상태에 따라서 구별되어야 한다. 정결의 형태는 크게 동정생활을 통한 정결과 혼인생활에서의 정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혼인한 사람들은 부부로서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을 실천한다.”¹³⁾

(1) 하느님과의 일치

교회 전통 안에서 동정자는 정결을 서약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여겼다. “그리스도교의 동정은 그리스도 동정의 실재적인 참여이고 ‘영’안에서, 즉 성령의 현존과 활동으로 살아가는 영혼 자체의 상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형의 일치를 통하여 영혼을 그의 배필이 되게 한다.”¹⁴⁾ 인간의 사랑과 혼인, 특히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결합에 대한 표징이다. 하지만, 하느님께 봉헌된 정결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의 신비를 가장 탁월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혼인보다 이 결합을 더욱 직접적으로 상기시킬 뿐더러 모든 인간적 사랑이 지향해야 할 자아 극복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덕에 의해 동정자는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차지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봉헌할 때만 하느님과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교 동정의 일차적인 목표이며 중심 사상은, 오로지 거룩한 것만을 지향하며, 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고,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하느님만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¹⁵⁾ 따

12)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28 참조.

13) 가톨릭 2349항.

14) 교황 비오 12세, 회칙, 거룩한 동정 생활, 17항.

15) 교황 비오 12세, 회칙, 거룩한 동정 생활, 15항.

라서 동정은 이런 극복을 실현해 가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하나의 좋은 준비가 된다. 감각적인 것과 내적인 욕구는 죄로 인하여 “영”에서 훨씬 더 분리되어서 영의 요청들에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신비가들이 영혼의 변형된 일치는 감각의 밤과 영의 밤이라고 불렀던 정확의 과정을 거쳐야 실현할 수 있다.¹⁶⁾

영혼과 하느님과의 일치는 “영”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못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감각적인 것과 하위의 욕구 등 장애를 제거하면서 하느님의 선물과 그 활동을 기다려야 한다.

II.2. 수도생활에서의 정결

II.2.1. 동정/정결의 신학적 근거

(1)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성 본받음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셨고 제자들에게 동일한 삶의 형태를 살도록 권고하셨다. 수도자는 예수님의 권고를 받아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수도자의 정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분은 마태오의 증언에 따라, ‘하늘나라를 위해’(마태 19,12) 독신의 신분을 취하셨다. 그분의 독신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특전적인 도구였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공통된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고 그들을 형제적 친교로 불러 모으시며, 당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성으로 결합되어 피조물의 관리자이며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때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독신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구성하는 모든 차원들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것은 하느님과 갖는 신비적인 새로운 관계, 인류와의 공동체적이고 봉사적인 관계, 그리고 사물들과의 주권적인 관계를 드러내준다.”¹⁷⁾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유혹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사랑 받음을 확신하여 아버지에 대한 성실한 사랑으로 모든 도전과 유혹을 깨끗하게 견디셨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설 수 있게 하였다.

(2) 성부의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정신을 전면적으로 아버지께 바치셨고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

17) 가르시아 파레데스, 정결-독신,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 pp.10

지를 사랑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요한 14,31) “예수님의 애정(eros)은 온전히 성부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선함에 의하여 감도된 것이었다.”(요한 17,1.4-5) 성자의 성부에 대한 전적인 사랑은 그로 하여금 하느님의 나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이’(마태19,11-12)라고 정의하신다. 그분은 모든 인류에 대한 아버지 사랑의 징표이시다. 예수님의 정결은 사람을 멀리하거나 사람에게 냉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전체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보편적이며 전적인 사랑의 인호가 되셨다.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와 당신의 형제로서 사랑해주고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호의와 친절이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한 절제와 깊은 기도를 계속하셨으며, 아무에게도 오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의 배려와 신중을 기하여 모든 이를 적당한 자세로 사랑하셨다.¹⁸⁾

(3) 부활 신앙과 종말론적 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하느님 다스리심의 종말론적 완성의 상태다. 파스카 사건이 그 독신을 계시하고 성취한다. 파스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동정이며 혼인한 몸으로 변화되었다.¹⁹⁾ 이 동정인 몸은 그 정배인 교회와의 친밀한 관계를 내포한다. 그 몸은 영원히 자신을 내어주는 몸이다.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결합시키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이끄므로써 그들을 되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동정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낳는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친교의 사랑을 나누는 동정의 풍요로움을 말해주고 있다.

(4) 예수님의 정결에 참여하는 수도자의 정결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셨다. 또한 예수님의 시대부터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제자와 처녀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려고 동정생활을 시작했다.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려면 그분과 똑같이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그들은 깨닫고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²⁰⁾ 이리하여 동정생활은 수도생활이 시작되기 오래 전에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있었다. 동정자들의 공동체는 초기 교회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수도자는 예수님의 정결에 참여하여 그 정결을 그대로, 온전한 형태로사는 것이다. 곧 ‘예수가 살았던 정결’, ‘예수 자신의 정결’을 그대로 사는 것이다. 즉 ‘정결하신 예수

18)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40 참조.

19)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41 참조.

20)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41 참조.

자신'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자의 정결의 목적과 양식은 완전히 예수님께 달려 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결의 ‘원인’과 ‘원동력’이 되신다. 그분은 정결의 ‘모범’과 ‘표본’과 ‘이상’이 되신다.”²¹⁾

그뿐만 아니라, 수도자는 예수님의 정결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자신의 정결’을 살게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는 정결의 ‘내용’이 되신다.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 정결을 사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므로, 예수님은 그 정결의 ‘주체’이신 것이다.”²²⁾

성실히 정결하게 살다보면 그들 안에서 신비스러운 형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주체성을 장악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체가 되신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아니, 그들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갈라 2,20)

동정서원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그러나 한평생 이 은총을 거둬 생각하여 자기 노력으로 정결을 완성시켜야 한다. 정결의 덕행은 한 번에 영구히 완전하게 얻어지지 않는다. 많은 노력과 그날그날의 수련으로 얻어지는 덕행이다. 노력하는 것 자체도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정결을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탁마하려고 할 때, 그 정결은 인간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만다. 즉 어떤 규칙을 지키고 본능적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일에만 신경 쓰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정결의 준수에 그치고 만다. 또는 이 세상과 인간을 업신여기는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세에 그친다.”

한 마디로 수도자의 정결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그분과 하나되어 그분의 사랑으로 하느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순간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하고 그분처럼 끊임없이 기도로써 아버지의 뜻을 찾아 모든 욕망과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²³⁾

II.2.2. 수도자의 정결의 영적 의미

수도자의 동정성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성과 일치된다. 동정생활은 주님의 말씀과 모범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성자께서 세상에 오시어 성부의 뜻을 채우시던 그 생활, 성자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그 생활을 보다 철저히 본받고 교회 안에서 영구히 재현하는 것이다.”²⁴⁾

21)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41.

22)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42

23)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pp.43.

수도자는 축성된 정결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희생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동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체 성사적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나누어진 빵과 흘러진 포도주, 즉 전적인 자기 증여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생명을 주는 삶이다.”²⁴⁾

II.2.3. 수도생활에서 정결의 실제적 실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생활은 자유로운 마음과 몸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다. 따라서 완전한 성적 금욕을 요구한다. 이 성적 금욕은 외적으로 생식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애정의 능력을 하느님과 이웃에게 봉헌해야 한다. 그러므로 애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천할 것인지 살펴본 다음에 하느님과 이웃에게 봉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성적 욕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겠다.

II.2.4. 소결론 : 정결 신학의 핵심 요약

정결은 고대 문화에서 주로 여성의 육체적 정절로 이해되었으나,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정결은 보다 본질적이고 전인적인 덕으로 새롭게 인식된다. 정결은 단순한 성적 금욕이 아니라, 성이 인격 안에 질서 있게 통합된 상태, 곧 인간의 마음·육체·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조화롭게 정향되는 내적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타인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존중하며, 사랑을 이기적 소유나 쾌락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자기 증여로 승화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정결은 윤리적 덕이자 동시에 성령의 선물, 즉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되는 은총적 현실이다.

신약의 관점에서 정결은 외적 규범이 아니라 내적 정화와 영적 통합이다. 예수께서는 정결을 단순한 행위의 제한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되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르치셨다. 인간의 몸을 성령의 궁전으로 드러내신 그분은, 성의 올바른 사용과 절제가 하느님께 대한 예배와 사랑의 표현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정결은 인간적 억제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일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의 변형이며, 그 원천은 성령의 활동이다.

절제·동정·독신과의 관계 안에서 정결은 더욱 분명해진다. 절제는 정결을 지탱하는 기본 덕으로, 욕구를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가치가 욕망을 이끌도록 하는 질서의 회복이다. 동정은 그리스도의 동정을 직접 본받아 하느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봉헌하는 삶이며, 그 안에서 정결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드러난다. 독신은 하느님 나라

24) 교회헌장, 44항.

25) 가르시아 파레데스, 정결-독신, 하느님 나라 위한 동정, pp.31

에 전념하기 위한 자유의 선택으로,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 보편적 사랑과 영적 결실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수도생활에서 정결은 단순한 성적 금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에 참여하여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살게 되는 신비로운 일치이다. 수도자는 정결의 서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며, 성령의 은총 안에서 점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갈라 2,20) 변형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일치는 즉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영의 ‘밤’을 통과하는 정확의 과정을 거치며, 성적 욕구를 억압이 아니라 승화로 다루는 성숙한 자기 인식과 절제를 요구한다. 실패와 갈등이 없는 정결은 없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중심적 정결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 정결로 전환될 때 정결의 덕은 성숙한다.

결론적으로, 정결은 인간의 성과 욕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덕이 아니라, 사랑을 온전히 하느님께 열어 참된 자기 증여로 이끄는 영적 능력이다.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존재의 방향성이며, 성령 안에서 인간 인격이 점차 통합되고 성숙해지는 성화의 길이다. 수도자에게 정결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중심적 실재이며,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는 통로이다. 따라서 정결은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하느님과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방유룡 신부의 영성적 배경과 '욕(慾) 개념' 분석

Ⅲ.1. 방유룡 신부의 생애와 영성

Ⅲ.1.1. 생애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는 1900년 3월 6일, 서울 정동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 방경희는 조선 말기 궁내부 주사였으며, 동시에 영국 공사관의 통역관으로 활동한 지식인이었다. 모친 손유희 사이에서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가톨릭 신앙과 지성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일찍이 사제 성소를 품게 되었다.

그는 소신학교 6년, 대신학교 6년을 수학한 후, 193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같은 해 11월, 강원도 춘천성당의 보좌신부로 임명되며 본격적인 사목 여정을 시작하였다. 방 신부는 평생을 한국 교회와 수도 영성의 발전에 헌신하며, 여러 수도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1946년 4월 21일, 그는 개성에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주보로 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를 창립하였다. 이는 한국 최초의 순수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여성 수도회였다. 이어 1953년 10월 30일, 남성 수도회인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를 창립하여, 남녀 방인 수도회라는 독창적인 수도 가계를 완성하였다. 이후에도 1957년 '외부회', 1962년 '빨마회'를 설립하며 수도 영성의 외연을 확대해나갔다.

그는 27년간(1957-1984) 수도회 총장으로 봉사하였으며, 창립자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수많은 수도자들을 완덕의 길로 이끌었다. 자신의 삶 또한 철저히 하느님께 봉헌된 수도자의 길로 일관하였다. 방 신부는 1986년 1월 24일, 서울 성북동의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원에서 향년 86세의 나이로 선종하였다. 그의 생애는 한 편의 깊은 영성서였으며, '면형무아'라는 고유한 수도 영성을 삶으로 살아낸 여정이었다.²⁶⁾

Ⅲ.1.2. 방유룡 신부 영성의 특징

(1) 인간은 성화의 소명을 받은 존재

방유룡 신부에게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성화의 소명을 받은 존재이며, 창조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가능성을 지닌 거룩한 희망의 존재로 규정된다. "각 사람이 세상에 날 때에 명령을 받아가지고 난다. 곧 성화 명령이다. 바오로 사도 가르쳤다. 하느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성화니라. 사람이 세상에 날 때에 하느님께 받은 제일 근본적인 사명은 곧 성화다. 하느님의 모상에 난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야 한다."²⁷⁾ 그는 하느님의 창조를 물질의 창조와 영적(영신)의 창조라는 두 차원으로 파악하였는데, 물질의 창조는 인간의 육체적 형성을 의미하고, 영적 창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성을 지닌 영혼으로서 하느

26) 이숙자, 2021, 면형무아의 길, pp.20

27) 강론 65.9.10.

님과 일치될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하느님 창조 사업에도 물질의 창조 사업, 영신의 창조 두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물질은 빛을 내고, 마지막으로 당신 모상인 사람을 냈다. 영신계 창조 사업에 있어서도 먼저 빛이 있어야 한다. 이 빛이 곧 하느님이시다. 이 빛을 받아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빛, 그것으로 하느님의 마음과 같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빛을 받을 때가 영적 창조 사업이 끝나는 때다.”²⁸⁾

이러한 영적 창조가 바로 성화사업이며, 하느님이 계속해서 인간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창조적 활동이다. 방유룡 신부는 창조의 완성이 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생활을 이러한 성화의 소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삶으로 보았다. 그는 수도자를 세속적 혼잡에서 벗어나 성화에 전념하는 ‘전문가들’²⁹⁾이라고 규정하며, 인간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일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에 수고하고 골몰하는가! 모든 힘 다하여 하느님만 위해 드릴 것이다.”³⁰⁾ 따라서 인간은 영적 창조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개방하며, 창조 목적의 완성인 성화와 일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³¹⁾

(2) 정확을 가능하게 하는 길: ‘침묵’

그러나 인간은 현실 속에서 분심, 잡념, 사욕, 나쁜 마음, 왜곡된 자기애와 같은 내적 장애로 인해 하느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욕이 꿈쩍도 못하게 되어야만, 사욕이 제거되어야만 빛을 통하여 하느님을 보게 될 것’³²⁾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성화의 여정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방유룡 신부는 이러한 영적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이 정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침묵’을 제시하였다. 침묵은 인간 안에서 사욕을 잠재우고 내적 질서를 회복시키며, 영혼을 정화하여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 스며들 공간을 여는 행위이다. 그는 초기 강론부터 마지막 강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욕이 꿈쩍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잠재워져야 하느님의 빛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침묵의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한 수행 규율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여 성화를 향한 인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영적 방법이다.³³⁾

28) 강론 58.12.4.

29) 강론 59.2.8.

30) 강론 60.6.15.

31) 강론 60.4.10 참조.

32) 강론 59.2.14 참조.

33)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89 참조.

(3) 완덕의 절정이 면형무아

방 신부의 호는 무아이다. 방 신부 자신의 호에서 이미 감지되듯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양의 문화를 터전으로 완성시킨 그의 독창적인 영성에 있다. 완덕의 절정이 면형무아이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무아의 길을 점성, 침묵, 대월로 설명하는 방 신부의 영성은 ‘면형무아의 영성’이다.

이 영성 안에서 ‘면형 무아’는 영적 여정 가운데 ‘일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초기 한국 교회 안에서 ‘성체’를 뜻하는 말이 ‘면형’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비운 상태를 의미하는 ‘무아’가 연결된 말이다. 방 신부는 면형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마침내 ‘면형’이 되신 하느님 사랑의 절정, 케노시스의 절정을 만난다.

그리고 방 신부는 마치 누룩 없는 빵이 성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면형무아’가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갈라 2,20)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면형’이니, ‘면형’ 안에 계신 주님과 일치되기 위해 우리도 ‘면형무아’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성소’라고 가르친다.³⁴⁾

면형무아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과 합일을 이루는 영적 삶의 절정이다. 모든 수도의 출발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의 영성은 그리스도교 진리에 깊게 뿌리박혀 있다.

방유룡 신부는 단순히 서양 수도 영성을 이식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 정서와 유교·도교적 무아정신을 통합하여 그리스도교 영성을 ‘토착화’하였다. 그는 인간 존재가 가진 이원론적 갈등, 즉 영과 육의 분열을 극복하고, 전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서는 삶을 가르쳤다. 이와 같은 통합적 영성은 수도자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효한 길로 제시될 수 있다.

Ⅲ.2. 방유룡 신부의 ‘욕(慾)’ 개념과 영적 구조

정결은 단순히 육체적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하느님을 향해 온전히 정돈되는 영혼의 질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결의 여정은 필연적으로 “사욕”을 직면하고 분별하며, 이를 침묵 안에서 정화하는 과정과 직결된다. 방유룡 신부는 자신의 영적 지도와 강론에서 “욕”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결의 영성이란 곧 사욕을 비우는 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그는 사욕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도구로 “침묵”을 제시하였다. 즉 침묵의 영성 없이는 정결의 영성이 성립할 수 없다는 구조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34) 회헌, 77쪽 참조.

본 장에서는 방유룡 신부가 제시한 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결의 영성과 연결함으로써, “사욕의 정화”가 왜 침묵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결의 본질적 토대가 되는지를 밝힌다.

Ⅲ.2.1. 인간 욕구의 네 가지 형태

방유룡 신부는 욕(慾)을 엄밀한 신학적 분류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고전적 수도 전통(사막 교부, 아우구스티노, 토마스 아퀴나스)의 맥락과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그가 제시한 욕의 네 가지 구분은 인간 내면에서 하느님을 향한 움직임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분별하는 데 결정적이다.

(1) 자연적 욕(慾) - 인간성의 정상적 작용

자연적 욕구는 인간의 본성 안에 주어진 긍정적 욕이며, 애정, 보호 본능, 생존 본능과 같은 자연스러운 정감을 포함한다. 그는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애정,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애정과 같은 당연한 마음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욕은 본성적으로 선하며 윤리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방 신부는 자연적 욕 역시 지나치면 인간을 내적 분산으로 이끌어, 영혼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처자가 있으면 물욕과 명예욕이 더욱더 일어난다.”³⁵⁾ 따라서 수도자와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러한 자연적 욕마저도 하느님 안에 봉헌해야 하며, 기도와 침묵 속에서 정돈해 나가야 한다. 자연적 욕이 봉헌되지 않으면, 애정은 집착으로, 관계는 소유로 변질되어 사욕으로 이행할 위험이 있다. 정결은 이러한 자연적 욕의 정화와 재정렬을 포함한다.³⁶⁾

(2) 허욕(虛慾) - 감각적·헛된 욕구

두 번째 욕은 직감, 상상, 감각적 충동에서 발생하는 “허황된 욕, 헛된 욕”이다. 방 신부는 이를 “비뚤어진 욕심”이라고 부르며 인간에게 실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욕구로 규정한다. 허욕은 감각적 만족만을 추구하며 영적 여정에서는 방해 요소이다. 창설자는 감각적 충동의 발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동의하는 순간 사욕이 되고 죄로 기울어질 위험이 생긴다고 설명하였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으며, 다만 동의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⁷⁾

정결의 영성은 허욕에 대한 무차별적 억압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감각적 충동을 분별하고 ‘동의하지 않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35) 강론 64.2.5.

36)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118 참조.

37) 강론 59.7.9.

(3) 원욕(原慾) - 하느님께로 향하는 근원적 욕구

세 번째 욕인 ‘원욕’은 사욕과 정반대의 역동을 지닌다. 방 신부는 원욕을 “하느님께 서 주신 것”³⁸⁾이라 정의하며, 성령의 작용으로 영혼 안에서 일으켜지는 하느님 향한 원초적 갈망으로 설명한다. “하느님께로 바로 서야 한다.”³⁹⁾ “의욕의 목적물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셔야만 의욕이 채워진다.”⁴⁰⁾ 원욕은 한없이 확장되며, 오직 무한하신 하느님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정결은 이 원욕이 사욕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강화하는 영적 상태이다.

(4) 죄로 기울어지는 의지적 욕 - 사욕(邪慾)의 본질

네 번째 욕은 의지적 욕구로서, 하느님께 기울어진 원욕을 가로막고 그분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의지적 움직임이다. 이것이 바로 ‘사욕(邪欲)’이다. 방 신부는 인간이 원죄로 인해 나약하여 스스로는 죄를 피할 수 없으며, 마귀의 유혹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명확히 말한다. “하느님의 은총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나, 자기 힘으로는 안 지을 수가 없다.”⁴¹⁾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의지를 타락시킨다. 그래서 마귀 간첩하고 사욕하고 하나가 되었다”⁴²⁾

사욕은 하느님과 일치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영혼을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뜨린다. 정결의 길은 결국 이 사욕을 침묵 속에서 분별하고 뿌리째 뽑아내는 여정이다

III.2.2. 사욕의 기원: 타락한 의지와 내적 분열

방유룡 신부는 사욕의 기원을 아우구스티노처럼 “아담의 불순명”에서 찾는다. 사욕은 본래 창조된 선한 본성의 일부가 아니며, 타락 이후 나타난 내적 왜곡이다.

“사욕은 타락한 의지의 소산이니, 그 유래는 적의 유혹이요, 적은 인간의 무식을 기회 삼아 속임수로 유인하네. 우리의 적은 악마요, 그 이름은 사탄이요 사기한일세.”⁴³⁾ 그는 영가에서 사욕을 “마귀의 유혹이 불러일으키는 속임수”로 설명한다.

비록 사욕이 죄는 아닐지라도 하느님과 일치 여정에 있는 인간에게 매우 위협적인 실재이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온아 주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니, 이 무슨 말인가?

네가 하느님을 떠날지라도 주는 너를 떠날 수 없다.

괴로우면 주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니, 이는 사욕이 하는 말일세.

38) 강론 58.12.20.

39) 강론 63.8.17.

40) 강론 67.8.5.

41) 강론 67.8.5.

42) 강론 70.5.27.

43) 영가 25.51-53.

하느님과 너를 갈라놓고자 사욕이 하는 말일세.”

이 영가 안에서 방유룡 신부는 사욕의 동작 하나를 지적하는데, 사욕은 하느님과 일치란 허망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간을 꾀다는 것이다. 사욕은 영혼이 완덕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어떤 연쇄 작용에 있어서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다. 사욕의 기능은 언제나 동일하다. 하느님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결은 사욕의 근원을 뿌리째 제거하고, 영혼을 다시 하느님으로 재정렬하는 작업이다.

Ⅲ.2.3. 사욕과 영혼의 질서: 정결을 방해하는 내적 동요

방 신부는 영혼이 사욕에 동의할 때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역동”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한다. 사욕이 일어나면 영혼에는 다음과 같은 무질서한 정동이 발생한다. 그것은 증오, 도망, 슬픔, 절망, 두려움, 분노 등과 같은 무질서한 내적 태도들이 나타난다.⁴⁴⁾

이는 에바그리우스는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헛된 영광, 교만을 '여덟 가지 악한 생각'과도 통하며, 사욕이 영혼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현상을 설명한다.

반대로 사욕이 배제될 때 영혼에서는 다음이 솟구친다. 사랑, 즐거움, 희망, 용맹 등과 같은 질서 있는 내적 태도들이다.

이 질서 있는 상태가 바로 정결의 내적 상태이다. 정결은 외적 절제가 아니라 영혼의 질서, 마음의 통일성, 하느님을 향한 지향의 온전성이다.

44)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149 참조.

IV. 침묵 영성: 전통적 이해와 방유룡 신부의 심화

IV.1. 기독교 전통에서 본 침묵

IV.1.1. 사막 교부들의 헤시키아(내적 고요)

수도자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이유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더 온전히 응답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사막의 침묵과 고독은 세상의 소음과 충돌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었다.

사막 교부들은 마음이 평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적 정화(헤시키아, hesychia)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침묵·고요·고독은 헤시키아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침묵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실천하기 위한 도구였다.

교부들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침묵이라 보지 않았다.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남을 비난하면 침묵이 아니다. 반대로, 많은 말을 하더라도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침묵을 지키는 것과 같다. 참된 침묵은 ‘마음의 상태’로 규정되었다. 포이멘(Poimen)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묵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다.”고 말하였다.⁴⁵⁾

포이멘(Poimen)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삶 안에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⁴⁶⁾라고 말하였다.

에바그리우스는 침묵을 “기도의 준비” 자세로 보았다. 침묵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위한 전제이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돕는 영적 기틀이었다.

이들이 말한 헤시키아(hesychia)는 외적 고요가 아니라 “마음의 정화”, 즉 내적 격정의 침잠을 뜻했다. 따라서 침묵은 사욕·분심·감정적 동요를 정화하여 영혼을 하느님께 돌리는 영적 훈련이었다.

방유룡 신부가 말한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없애는 내적 침묵”은 사막 교부들의 헤시키아 전통과 맥을 같이하며, 침묵을 마음의 정화를 위한 영적 투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IV.1.2. 초기 수도 공동체의 침묵: 생각·감각·말의 절제

사막의 개인적 은수 전통이 공동체로 확장되면서 침묵은 보다 구체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1) 빠꼬미우스 전통

빠꼬미우스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고를 억제하는 법, 말과 행동, 눈과 감각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다. 침묵은 생각·말·행동을 절제하여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수련이었

45) The Sayings Of The Desert Fathers, Poimen pp.147.

46) The Sayings Of The Desert Fathers, Poimen pp.84.

다. 이는 감각을 통한 분심을 줄여 영적 집중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성경 묵상은 침묵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며, 묵상의 전제 조건이 감각의 침묵임을 강조하였다.

마음에서 침묵을 배우기 시작할 때 수도자는 성서를 묵상하고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들의 혀를 맛을 낸 소금과 같이 간직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⁷⁾

침묵은 이러한 묵상을 가능하게 하며, 성경의 말씀으로 입과 마음을 적시게 한다고 이해되었다.

(2)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동식탁에서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침묵을 규정하였다. 의미 없는 잡담과 속삭임을 금지한 이유는 침묵 없는 영혼은 결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침묵을 하느님 안에 머무는 기쁨과 사랑의 상태로 이해하였다.(수도원규정서9).⁴⁸⁾

(3) 까시아누스

까시아누스는 침묵을 동기에 따라 선한 침묵과 악한 침묵으로 구분하였다. 허영, 자만, 분노 때문에 말을 억누르는 침묵은 악한 침묵이고, 하느님을 찾기 위해 욕망과 걱정을 절제하는 침묵은 참된 침묵이라고 보았다.

참된 침묵은 결국 마음의 순결(puritas cordis)로 이어지며, 깊은 침묵은 “마음의 순결”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불같은 기도”로 표현된다.⁴⁹⁾

방유룡 신부가 침묵은 사욕을 억제하는 것이다⁵⁰⁾라고 정의하며, 동기에 따라 침묵의 질을 구분한 점은 까시아누스의 침묵 이해와 깊이 닮아 있다. 또한 감각 통제와 행동 절제를 강조한 빠꼬미우스 전통은 방 신부의 ‘외적 침묵(오관과 동작 절제)’의 기반이 된다.

IV.1.3. 수도승 규칙서의 침묵: 겸손과 영적 질서

(1) 스승의 규칙서(RM)

RM 8장은 마음이 감각(눈·입)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므로, 입과 혀를 닫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침묵의 핵심이라고 가르쳤다.

47) 최준배, 2011, “성 베네딕도 규칙서”에서 나타난 침묵의 영성 -RB 제6장과 RM 제8.9장 비교분석 토대로-, pp. 20-22 참조.

48) 최준배, 2011, “성 베네딕도 규칙서”에서 나타난 침묵의 영성 -RB 제6장과 RM 제8.9장 비교분석 토대로-, pp. 24-25 참조.

49) 최준배, 2011, “성 베네딕도 규칙서”에서 나타난 침묵의 영성 -RB 제6장과 RM 제8.9장 비교분석 토대로-, pp. 26-28 참조.

50) 강론 70.1.12.

좋은 말조차 절제해야 한다고 본 점은 침묵을 겸손의 실천으로 보는 관점이었다.

(2) 베네딕도 규칙(RB)

베네딕도는 침묵을 수도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기본 덕으로 규정한다.

RB 제6장은 “나쁜 말뿐 아니라 좋은 말이라도 하느님 앞에서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침묵은 ‘영혼을 낮추는 행위, 겸손과 순종을 키우는 덕, 마음의 교만을 억제하는 영적 장치’로 제시된다. 침묵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의 존재 방식이었다.⁵¹⁾

방유룡 신부가 “사욕 때문에 따지고 변명하는 것은 이성 침묵을 깨뜨린다”고 말하며, 이성·의지 전체를 침묵시키는 영성은 베네딕도 규칙의 겸손·절제·순종의 침묵을 한층 심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전통을 배경으로 할 때, 방유룡 신부의 침묵 영성은 다음과 같은 독창성을 드러낸다.

침묵을 단순한 덕의 차원이 아니라 ‘완덕으로 가는 필수 통로’로 제시한다.

침묵의 목적을 ‘사욕의 뿌리 제거’라는 강한 영적 정화 작업으로 확대한다.

침묵을 육신·감정·이성·의지 전체의 통합적 영성 훈련으로 체계화하였다.

침묵의 극치를 ‘면형무아’, 즉 그리스도의 현존이 드러나는 정결의 상태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막 교부·초기 수도승·베네딕도 전통이 말한 침묵의 핵심을

방유룡 신부 고유의 언어로 재해석한 현대적 침묵 영성으로 볼 수 있다.

IV.2. 방유룡 신부의 침묵 영성

IV.2.1. 침묵의 본질: 내면성과 초월을 향한 길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수도 생활에서의 침묵은 감각기관의 절제(외적 침묵)를 넘어, 마음과 정신, 의지의 통제(내적 및 영혼의 침묵)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실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요”(루카 14,33 참조)라는 가르침은 사적인 욕망과 애착을 초월하는 절대적 자기 부정을 요청한다.

즉, 침묵은 사욕과 분심잡념을 제거하는 영적 훈련이며, 이는 곧 ‘빛’을 보기 위한 조건이 된다. 분심과 사욕은 ‘영혼의 구름’이 되어 하느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므로, 침묵은 곧 하느님 인식의 조건이자 사랑의 전제로 작동한다.⁵²⁾

51) 최준배, 2011, “성 베네딕도 규칙서”에서 나타난 침묵의 영성 -RB 제6장과 RM 제8.9장 비교분석 토대로-, pp.28-31 참조.

52) 강론 59.3.9

IV.2.2. 침묵의 효과

(1) 빛과 생명, 그리고 ‘대월’로의 이행

침묵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빛과 생명이 임한다. 침묵은 수도자에게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곧 무한히 자라나는 생명으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능력을 확장시킨다. 침묵을 통해 수도자는 고통과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 수 있게 되며, 내면의 에너지를 하느님 사랑으로 전환하게 된다.

“침묵을 실천하면 생명이 오고, 빛이 오고, 피가 통한다. 이 생명은 무한히 자라는 생명이다”⁵³⁾

이러한 침묵의 정점은 “침묵절정”과 “대월절정”을 지나 “면형무아”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자아의 완전한 해체와 하느님 안에서의 존재의 새로움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일치, 즉 ‘지상천국’의 삶을 이루는 길로 인도한다.

(2) 대월로 향하는 문

완덕오계는 단지 자제와 절제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대월’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다. 대월은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히 비추는 신비의 상태이며, 이를 통해 수도자는 ‘면형무아’, 즉 자신의 모습을 잃고 하느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침묵은 바로 이 대월로 들어가는 문이다.

“빛을 받기 위해 침묵밖에 없다. 이 침묵이 완덕오계다. 완덕오계를 통해서 대월로 들어간다.”⁵⁴⁾

이와 같이 완덕오계는 침묵의 구조를 전인격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삶의 방식이며,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준비하는 영적 훈련이다. 이러한 침묵과 완덕의 실천은 결국 수도자가 ‘자기 비움’을 넘어 ‘신적 일치’에 이르도록 인도하며, 수도 생활의 깊은 신비를 드러내게 한다.

(3) 침묵과 극기: 완덕으로 가는 길

“극기 중에 제일 극기는 침묵이요, 기도 중에 제일가는 기도는 대월이다. 완덕오계를 통하여 우리는 자제한다. 양심, 자유 모두 자제하는데, 이것이 극기다. 극기의 목적은 면형으로 가기 위한이다. 면형으로 가는 길은 극기이며, 이는 날마다 자제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⁵⁵⁾

침묵은 자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산다고 하셨다. 하기 싫은 것 하는 이것이 침묵이다.

53) 강론 59.6.21

54) 강론 64.10.3

55) 강론 64.9.29

면형은 먼지만도 못한 것이다. 나를 없이 할수록 하느님의 자유와 권세가 내린다. 하느님이 된다.⁵⁶⁾

우리가 면형이 되어야 한다. 나를 자제하여 극기하는 것이 면형이다.

침묵을 해야 하느님을 보게 된다. 완덕 절정이 면형이다.⁵⁷⁾

IV.2.3. 완덕오계와 침묵

침묵은 수도자의 삶에서 가장 철저한 극기이며, 동시에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근본적인 훈련이다. 이러한 침묵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이 바로 “완덕오계”이다. 완덕오계는 수도자의 삶 전반에 걸쳐,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침묵 속으로 이끄는 실천 항목들이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외적 침묵 - 이, 목, 구, 비, 수족, 동작

내적 침묵 -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영혼 침묵 - 이성 침묵, 의지 침묵

신부님께서서는 이 침묵을 지킬 수 있도록 완덕 오계에 풀어서 “틀”을 만들어 주셨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계는 분심 잡념을 물리치고,

이계는 사욕을 억제하고,

삼계는 용모에 명랑과 평화와 미소를 띠고, 언사에 불만과 감정을 발하지 말고 태도에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하고,

사계는 양심불을 밝히고

오계는 자유를 천주께 바치고 그 성의를 따를 지니라.

IV.2.4. 침묵 영성의 소결론

침묵은 수도생활의 핵심이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전인적 영성의 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 감각(외적), 정신(내적), 영혼(이성과 의지)의 차원을 아우르는 영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침묵은 사욕을 끊고, 분심을 제거하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훈련이며, 곧 자기 비움과 신적 일치의 여정이다.

특히, 완덕오계는 이 침묵의 구조를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56) 강론 65.3.26

57) 강론 74.5.27

안내하는 영적 지침이다. 완덕오계는 감각 절제에서 시작하여 감정과 의지를 정화하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면형무아’의 경지로 인도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도자는 내면에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빛은 하느님의 생명이며 사랑이다.

침묵을 실천하는 수도자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세속적 욕망과 쾌락을 떠나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에로 나아가게 된다. 이 여정은 결국 “나는 날마다 죽인다.”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결국, 침묵은 수도자의 영성 전체를 관통하는 실천이며,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수도자는 침묵을 통해 자기를 죽이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며, 이로써 이 땅 위에서도 천상의 삶, 곧 지상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침묵은 곧 생명이자 빛이며, 대월의 경지를 향한 여정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V. 침묵과 정결의 상호 관련성: 영성적 통합

V.1. 침묵이 사욕을 정화하는 방식

방유룡 신부는 정화를 “영혼을 가리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여 하느님과 일치에 향하게 하는 여정”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영혼이 신비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이 침묵의 눈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며, 정결한 영혼만이 하느님의 신비 창조를 인식할 수 있다. 이때 “침묵의 눈”은 정결한 영혼을 상징하며, 침묵은 정화를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침묵은 영혼을 고요하게 하여 불순물을 드러내고, 사욕과 혼란을 치유하며, 하느님을 인식하는 감수성을 회복시킨다.

따라서 정화는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정리 과정이며, 정결은 그 침묵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영혼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V.1.2. 침묵은 사욕을 드러내는 ‘영적 빛’이다

방유룡 신부는 “신비 세계의 존재는 확실하다. 그러나 장님은 좋고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있어도 못 보는 것과 같이 침묵의 눈을 갖지 않으면 이 신비의 세계를 못 본다. 사욕을 누르지 못하면 이 신비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⁵⁸⁾고 말하며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사욕(私慾)이고 사욕을 정화하지 못한 채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침묵은 이러한 사욕을 드러내는 내적 조명과 같다.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과 충동이 자신인 양 착각한다. 그러나 침묵의 고요 속에서는 마음의 표면이 잔잔해지고, 그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감정·상상·충동·유혹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충동이 감각적 허욕인지, 어떤 생각이 상상에서 온 것인지, 어떤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게 하는 사욕인지’ 이 모든 것은 침묵 가운데서만 식별될 수 있다.

그렇기에 방유룡 신부에게 침묵은 영적 인식의 장소, 즉 빛이 들어오는 장소이며, 정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V.1.3. 침묵은 사욕을 약화시키고 ‘동의하지 않을 힘’을 길러 준다.

그는 반복해 말한다. “사욕을 듣지 말고 없애려고 애써야 한다.”⁵⁹⁾ “예수님께서서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라 하신 것은 당신과 같이 무의식도 없음같이 하라 하신 것이 아니다. 들어오는 것 상관없다는 것이며, 다만 동의 안 하는 것 말이다.”⁶⁰⁾

58) 강론 59.8.26.

59) 강론 62.11.3.

60) 강론 59.7.9.

“하느님을 알수록 재미가 난다. 나쁜 생각, 나쁜 사욕, 흉악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면 하느님께서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면 하느님께서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 안 되고 동의해야만 죄가 된다. “나쁜 생각 들어도 물에 떨어진 기름이 섞이지 않듯 하면 된다.”⁶¹⁾ “나쁜 생각 들어오면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고개를 흔들어서 싫다고 해야 한다. 나쁜 생각나는 대로 동의만 안하면 된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참아 받아야 된다.”⁶²⁾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듣지 않기, 즉 사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사욕은 죄가 아니라 죄로 이끄는 내적 움직임, 일종의 유혹이다. 유혹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영혼이 그 유혹과 하나가 되려는 순간 죄가 시작된다. 침묵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묵은 마음이 흔들릴 때 즉시 알아차리게 한다. 사욕이 속삭일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한다. 동의하기 전에 멈추고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게 한다.

시끄럽고 분주한 마음에서는 사욕이 내적 소란 속에 섞여 버려 분별이 어렵지만, 침묵 안에서는 사욕의 목소리가 낮은 소리로 드러난다. 침묵은 사욕을 약화시키고, 영혼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영적 호흡이다.

V.1.4. 침묵은 십자가의 역설-사욕으로부터의 해방

방유룡 신부는 십자가를 “사욕에서 해방되는 길”로 이해하였다.

십자가는 고통이자 자유의 속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두 팔로 움켜쥘 때, 온 가슴으로 껴안을 때, 인간은 사욕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에 이이를 수 있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인데,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이 역설을 표현하는 네 글자는 ‘전화위복’이라고 가르친다.⁶³⁾

이 해방은 침묵 안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침묵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침묵은 자신의 사욕을 억제하며 자기를 누르는 것입니다.”

침묵은 십자가의 자리, 하느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

내적 소음이 멈출 때 인간은 사욕과 하느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고, 사욕 대신 양심을 선택하는 자유가 열린다.

사욕이 일 때 양심이 뭐라 외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양심과 사욕은 서로 적대적이기에(마태 6,24), 침묵은 그 두 목소리 사이의 영적 경계를 세워 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침묵은 십자가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의지하며, 사욕을 끊어내는 영적 용기를 키우는 자리이다.

61) 강론 60.4.23.

62) 강론 60.10.22.

63)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153.

V.1.5. 침묵은 면형(麵形)의 조건-정결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다.

방유룡 신부 영성에서 가장 독특한 표현 중 하나는 “면형”이다.

면형은 “사욕이 없는 순결한 예수의 현존이 인간 안에 드러나는 상태”이며, 완덕의 표지다. 그는 말한다.

“사욕을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면형에 가지 못한다.”⁶⁴⁾

면형은 정결의 극치이며,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쳐지는 신비이다.

그러나 이 면형은 사욕을 제거한 영혼, 즉 정결한 마음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욕을 제거하는 가장 실제적 길이 바로 침묵이다.

침묵은 감각적 욕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적 욕망의 혼란을 정리하며 하느님만을 향하는 원욕(原慾)을 강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은 단순·투명·청명한 상태로 변하며, 바로 그곳이 정결의 영성과 면형의 신비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침묵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사욕을 드러내고,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은총이 활동하실 수 있는 내적 여지를 마련한다. 따라서 침묵은 정결에 이르는 길이자, 사욕과의 영적 투쟁이 일어나는 장이다.

V.2. 정결을 가능하게 하는 다섯 가지 침묵의 형태(완덕오계)

완덕의 길에 있어서 인간의 정화의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하나는 인간 자신이 주제요 대상인 능동적 정화, 다른 하나는 하느님이 주체가 되어 인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수동적 정화이다.⁶⁵⁾방유룡 신부는 능동적 혹은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정화를 구분하지 않는데, ‘침묵’이라는 용어로 제시하는 정화는 그가 진술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능동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그는 종종 침묵을 정화의 주체로 삼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침묵의 정화 기능을 지적하는 증거가 된다. “침묵은 우리를 정화시켜 하느님께로 길을 통해 신비 창조의 닦 단계에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⁶⁾

능동적 정화로서의 침묵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다섯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때 우리가 정화의 내용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방유룡 신부의 완덕을 위한 다섯 가지의 규칙이다. 다음 인용문은 이를 완벽하게 입증한다. “우리만 위해 주시고 우리만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잘 알아들으려면 침묵생활 잘해야 한다. 특별히 완덕오계 잘 지켜야 한다.”⁶⁷⁾

64) 강론 68.9.8.

65) 조던오먼, (영성신학), pp.207 참조.

66) 강론 72.2.27.

67) 강론 66.6.14.

V.2.1. 내적 침묵 I (내적 감각의 정화) - “분심잡념을 물리치고”

-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일어날 때 물리쳐야 한다.⁶⁸⁾
-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밖으로 외치지 말고 자기 속으로 들어가 극기와 순명의 길을 배울지어다.⁶⁹⁾
- 침묵은 자기를 누름이니 이 침묵만이 듣고 감각하며 생각하고 알게 한다.⁷⁰⁾

첫째로, 육체는 외적 감각과 내적 감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육신의 내적 감각들은 영혼의 이성적 기능들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공통감각-관념, 상상-추리, 평가-판단, 기억(본능적)-기억(지성적). 하지만 육신의 내적 감각들은 영혼의 이성적 기능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위이다.⁷¹⁾

내적 감각의 정화는 분심과 잡념을 통제되지 않으면 영혼을 산만하게 하여 초월적 지식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 방유룡 신부는 침묵이란 '하느님을 위해서 나쁜 생각을 누르는 것'⁷²⁾이라고 정의하며, 기억을 정화하는 길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는 감사의 기억 “하느님께서 우리만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무한한 보배를 창조하신다는 것, 까막눈은 못 보는 것을 마련해 주심을 자주 감사할 것이다.”⁷³⁾, 영원한 행복을 향한 희망 “하느님이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복락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본때를 보일 날이 올 것이다.”⁷⁴⁾의 기억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억의 정화는 기도와 잠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V.2.2. 내적 침묵 II (정욕의 정화) - “사욕을 억제하고”

- 하느님 싫어하는 사욕대로 살려 하는 나를 자제하여 없이해야 한다.⁷⁵⁾
-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대로 아무 것도 섞이지 않은 소성의 사람 즉, 사욕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⁷⁶⁾
- 사욕의 뿌리는 매우 깊으므로 순간마다 뽑아야 한다.

둘째로, 정욕의 정화는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내적 침묵의 또 다른 형태이다. 여기서 정욕은 단순한 성적 욕구가 아니라 희망, 절망, 근심, 분노, 증오 등 감정 전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감정은 자기애에서 기원하며, 방유룡 신부는 무엇보다도 ‘절망’ 혹은 ‘근심 걱정’ 등과 불건전한 내적 태도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과신에서

68) 강론 66.11.9.

69) 영가 73.

70) 단상과 명언 9.

71)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320 참조.

72) 강론 59.3.14.

73) 강론 59.6.21.

74) 강론 73.8.3.

75) 강론 64.9.29.

76) 강론 71.2.28

비롯된다는 것을 지적한다.⁷⁷⁾ 하느님의 전능에 대한 신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희망은 인간의 자신의 무지와 무능에 대한 겸허한 인정에서 출발한다.⁷⁸⁾ 그는 정욕을 정화하는 길로 그리스도교적 관념 형성, 악한 감정의 관념 배제, 그리고 의지적 노력을 통한 행위의 일치를 제시한다. 방유룡 신부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⁷⁹⁾라는 표현을 모든 관념에 앞서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의식으로 간주한다. 이 의식에 사로잡힘에서 ‘사랑의 동화’가 발생하고, 인간의 태도나 행위는 그 ‘사랑의 동화’⁸⁰⁾의 정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게 된다.

V.2.3. 외적 침묵 - (외적 감각의 정화) - “용모에 명량과 평화와 미소를 띠고, 언사에 불만과 감정을 발하지 말고, 태도에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하고”

- 용모로 기도하는 이는 얼굴에 구름이 끼지 않고 평화롭다.⁸¹⁾
- 우리 수도자들은 모든 이에게 거울이며 표본이 되어야 한다. 언어, 행동에 있어서 특별히 기거동작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끔 하여야 한다.⁸²⁾
- 괴로움이 즐거움이기에 성인들은 고난 중에 용약하고 괴로울 적마다 미소가 그지없어라.⁸³⁾
- 내적침묵이 된 이는 외적침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먹기만 하면 뭐하나 소화시켜야 한다. 음식이 살, 뼈, 피가 되는 것과 같이 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면 이것이 수도정신이다.⁸⁴⁾

셋째로, 외적 감각의 정화는 외적 침묵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오감과 외적 행동은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창이며, 이는 이성이 믿음의 빛 아래 질서 있게 감각을 다스릴 때 정화된다. 방유룡 신부는 명량하고 평화로운 용모,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언사, 단정하고 예모 있는 태도를 설명한다. 그것은 내적 감각들의 외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내적 침묵이 된 이는 외적 침묵으로 드러나게 된다.”⁸⁵⁾ 고유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영혼이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평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외적 태도의 요청이기도 하다. 방유룡 신부는 이러한 외적 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신의 말씀’⁸⁶⁾의 청취와 이해에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외적 침묵을 행하는

77) 강론 58.12.11.

78) 강론 61.9.16.

79) 강론 72.3.26.

80) 강론 72.3.26.

81) 단성과 명언 266.

82) 강론 61.7.1

83) 영가 11.

84) 강론 61.6.18.

85) 강론 61.6.18.

영혼은 한 가지를 들어도 열 가지를 깨닫는 신중한 지혜를 소유한 자로 평가된다.⁸⁷⁾ 이를 위해 절제와 극기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그의 극기 개념은 고행이 아니라 사욕의 억제 “극기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극기는 무엇인가? 나를 끊어 버리는 것이다. 나는(육체) 하느님의 걸작품이다. 왜 이것을 괴롭히겠나? 그럼 무엇을 끊어버릴까? 사욕이다. 극기는 사욕을 누르는 것이다.”⁸⁸⁾ 와 ‘거룩한 귀염성’⁸⁹⁾ 일상의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V.2.4. 이성 침묵(지성의 정화) - “양심불을 밝히고”

- 영혼의 빛은 양심에 비치고 양심의 빛은 눈에 비치고 영혼의 등불은 양심이요, 육신의 등불은 눈이로다. 양심이 찬란하면 눈에서 빛이 나, 빛 가운데서 사는 이는 만사가 능숙하고, 어두운데서 사는 이는 사는 보람이 없어라.⁹⁰⁾
- 허영심을 위하여 따지는 것은 이성침묵을 깨뜨리는 것이다. 아는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성침묵을 거스르는 것이다. 내가 하지 않은 과실을 내가 한 줄로 알고 꾸중하실 때 변명하지 않는 것은 좋은 희생이다.⁹¹⁾
- 세상의 비극의 원인은 양심을 거스르고 자유를 잘 못씀에 있다.⁹²⁾

넷째로, 지성의 정화는 이성 침묵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지성의 핵심을 양심으로 보고, 양심을 믿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신비 인식의 중심으로 이해한다. 지성의 능동적 정화는 ‘양심이 무디어진 결과’⁹³⁾를 초래케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방유룡 신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성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모든 ‘나쁜 생각’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 천부적인 지혜로서의 양심은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주의 깊은 학습을 통해 풍요로워지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방유룡 신부는 지성의 능동적 정화(이성 침묵)와 관련된 몇 가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너무 알려 하지 말고, 건방지게 굴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의지 반대에도 자각 행동 말고 고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⁹⁴⁾ 거룩한 진리에 대한 학습은 영적 삶을 위한 지혜로 승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지닌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자기만족만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독선적인 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⁹⁵⁾

86) 강론 63.7.19.
 87) 강론 63.7.19.
 88) 강론 70.3.22.
 89) 강론 64.2.7.
 90) 영가 33.
 91) 강론 60.12.11.
 92) 위의 책 16.
 93) 강론 68.8.20.
 94) 강론 61.7.22.

방유룡 신부는 인간을 하느님과 일치에 이끄는 이 빛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바친다.”⁹⁶⁾고 말한다. 사랑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신앙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양심불의 의미를 설명한다.⁹⁷⁾ 그는 완덕이 공로의 크기보다 사랑과 믿음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성 정확의 중심 원리로 제시한다.

V.2.5. 의지 침묵(의지의 정확) - “자유를 천주께 바치고 그 성의를 따를지 나라”

- 덕과 복은 일체이니 만덕에는 만복이로다. 모든 천성 기능 중에 의지가 최고로다. 자연계에서 최고 의지는 그 휘장이 자유로다. 의지는 자유니 절대 불가결이로다.⁹⁸⁾
-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양심과 자유이며, 자유는 천주님도 침범 못하는 완전 자유권인 선택하는 권리이다.⁹⁹⁾
- 하느님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달라” 하신 것은 우리 자유를 달라고 하신 것이다. 자유가 제일이기 때문이다. 이성과 의지 중에 이성은 따지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나, 의지는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제일인데 자유는 의지의 동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 하셨다.¹⁰⁰⁾
- 자유하나 완전하면 천만사는 진흥이니 자유만을 보존하세.¹⁰¹⁾

다섯째로, 의지의 정확화는 의지 침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는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의 해석과 더불어 의지의 능동적 정확화를 설명한다.¹⁰²⁾ 이 요청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의지가 피조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온전히 귀속되는 상태를 뜻한다. 복음은 인간이 하느님과 피조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마태 6,24; 루카 16,13).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의지를 완전히 하느님께 종속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¹⁰³⁾ 방유룡 신부는 인간이 이성 침묵을 완전히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의지는 자유로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 차원 안에서 의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일치의 원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 이때 인간은 첫째 계명의 원리인 ‘흠숭지도’¹⁰⁴⁾를 따라 의지를 하느님께 정

95)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334 참조.
 96) 강론 70.2.15 참조.
 97) 강론 71.6.4 참조.
 98) 영가 37.
 99) 단상과 명언 121.
 100) 강론 64.5.20.
 101) (신공절요) 퇴대가.
 102) 강론 59.6.21 참조.
 103)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338 참조.
 104) 강론 59.8.25.

향하여야만 한다. 특히 고통의 수용은 의지 정확의 핵심 시험 때이다. 무시나 모욕, 천대는 인간에게 고통이지만, 의지가 이를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일 때 고통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정확의 길, 곧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 그는 하느님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그 고통을 정확의 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솔질하시고, 또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놀라운 신비에 참여토록 축복을 내리신 것’¹⁰⁵⁾이라고 설명하며, 십자가를 영혼을 변화시키는 학교로 이해한다.¹⁰⁶⁾

V.3.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의 영성

V.3.1. 침묵과 자제의 영적 연결

수도생활의 핵심 덕목 중 하나인 정결은 단순한 육체적 절제를 넘어서, 전인격적 순수함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결의 삶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철저한 침묵의 실천 속에서 가능해진다. 침묵은 사욕과 욕정을 가라앉히는 도구이자, 정결을 지키기 위한 내적 토대를 제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루카 14,26 참조)고 하신 말씀은, 육친의 애정과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는 철저한 자기 비움을 요구한다. 이는 수도자가 정결을 지키는 이유이자 그 동기이며, 정결은 곧 침묵을 통해 완성되는 사랑의 양식이다.

V.3.2. 분심과 사욕의 소멸

정결의 영성은 침묵과 깊이 얽혀 있다. 침묵은 감각(외적 침묵), 정신(내적 침묵), 영혼(이성과 의지의 침묵)을 통해 분심잡념과 사욕을 제거한다. 이러한 침묵 없이는 정결 또한 유지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정결은 단지 육적인 절제만이 아니라, 사욕과 내적 불순에서의 정확, 곧 전 존재의 정결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육친에 대한 애정,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분심잡념이요, 영혼의 구름이므로 빛을 도무지 못 보게 된다.”¹⁰⁷⁾

침묵이 깊어질수록 영혼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빛이 사욕을 태우며 정결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침묵은 외적 절제를 넘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제거하며, 이를 통해 영혼은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되살려 낸다.

V.3.3. 사랑으로 향하는 정결 - 침묵 안의 변형

105) 강론 59.7.9.

106)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339 참조.

107) 강론 59.3.9.

침묵의 목적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 전환이다. 침묵을 통해 사욕을 버릴 뿐 아니라, 그 자리를 하느님 사랑으로 채우는 데에 정결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침묵은 자제력을 키우고, 자제는 사랑의 여지를 넓힌다. 이로써 수도자는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다.

“침묵을 실천하면 생명이 오고, 빛이 오고, 피가 통한다. 이 생명은 무한히 자라는 생명이다.”¹⁰⁸⁾

정결은 생명 없는 억제가 아니라, 빛과 생명이 유입되는 공간을 여는 영적 상태이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수도자는 하느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은 감각적 사랑을 초월하는 순수한 영적 결합으로 나타난다.

“정결의 덕과 정결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한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¹⁰⁹⁾

“철저한 내적 침묵으로써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 자주 발하자.”¹¹⁰⁾

이러한 사랑은 인간적 욕망을 대신하여 수도자의 모든 삶을 채우며, 정결은 더 이상 수동적 순명이 아니라 적극적 하느님 사랑의 표현으로 전환된다.

V.3.4. 침묵을 통해 완성되는 사랑의 양식(면형무아)

정결의 실현은 고통 없는 길이 아니다. 침묵 안에서 정결은 십자가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극기를 통해 유지된다. 이 길은 곧 ‘면형무아’의 경지를 향한 여정이며, 정결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 하느님만을 담는 준비가 된다.

침묵은 수도자의 ‘밤’을 통과하게 하며, 이 어둠 속에서 정결은 더 깊어지고 순화된다. 사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죽이는 행위, 정결은 곧 자기중심적 욕망을 비워내어, 하느님만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여는 삶의 방식이다. 이 정결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어, 수도자의 내면을 지상 천국으로 변화시킨다.

“사욕은 침묵대월로 빛이 내려와서 태워야 한다.”¹¹¹⁾

정결과 침묵은 모두 ‘하느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 존재한다.

침묵은 정결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정결 자체를 포함하는 실천이 된다. 침묵이 없다면 진정한 정결은 유지될 수 없으며, 침묵 속에서 정결은 생명으로, 사랑으로 변화된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느님과의 일치, 곧 ‘면형무아’와 ‘지복직관’의 삶으로 인도한다.

108) 강론 59.6.21.

109) 가톨릭 2520 참조.

110) 강론 59.7.19.

111) 강론 59.7.19.

“하늘나라를 위하여 받아들인 정결의 복음적 권고는, 내세의 표지이고, 나뉘지 아니한 마음 안에 더욱 풍성한 풍요의 샘이며 독신 생활의 완전한 정결의 의무를 수반한다.”¹¹²⁾

우리는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갈라짐 없는 마음(1코린 7,32-35 참조)으로 하느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세상에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일치의 표지가 된다.¹¹³⁾

수도자가 사욕을 자제하고, 감각과 의지, 지성을 정결하게 하며,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때, 침묵은 정결을 넘어서 하느님 사랑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도자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게 만든다.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은 곧 “하느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의 실현이다.

소결론: 방유룡 신부의 침묵과 정결의 상호 관련성

정결과 침묵은 수도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두 축을 형성한다. 정결은 마음이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욕구와 내적 소음을 비우는 과정이며, 침묵은 이러한 정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영적 환경이다. 전통적으로 수도자들은 정결의 핵심을 “마음의 단일성”(puritas cordis)으로 이해해 왔는데, 이는 외적·성적 의미를 넘어 마음의 모든 에너지가 하느님께 단순하게 향하는 내적 통합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감각과 상상, 분심과 사욕으로 인해 쉽게 흩어지고 이중화되며, 이러한 내적 분열은 정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때 침묵은 이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정확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침묵은 정결의 전제 조건으로서 감각과 분심잡념을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말과 관계,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로 향한다. 침묵의 시간 동안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욕구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흔들고 있는지 더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다. 수도자에게 가장 큰 내적 방해는 외부 소음이 아니라 내면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상상과 감각적 인상들이다. 침묵은 이 내적 소음을 약화시키고, 잡다한 욕구와 충동이 자리 잡을 틈을 줄여 준다. 중심을 잃은 욕구가 줄어들 때에야 비로소 마음은 순수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침묵은 사욕을 약화시키고 정결을 가로막는 내적 충동을 분별하게 하는 장이다. 방유룡 신부가 반복하여 강조한 사욕은 하느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자기 중심적 욕구로 이탈하는 모든 형태의 내적 움직임이다. 사욕은 감각적 욕, 허욕, 이기적 의지의 동요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이 사욕은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더 쉽게 나타나지만,

112) 교회법 599조.

113) 회헌 12항.

침묵 안에서는 그 움직임이 들리고 드러난다. 침묵은 사욕이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는 과정을 마주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부할 힘을 길러 준다. 즉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정결을 위협하는 내적 충동을 감식하고 해체하는 영적 투쟁의 무대가 된다.

셋째, 침묵은 하느님을 향한 원욕을 강화하여 정결을 완성으로 이끈다. 방유룡 신부에 따르면 인간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본원적 욕구, 즉 원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원욕은 세속적 욕구와 감각적 충동에 의해 묻히기 쉽다. 침묵은 이러한 원욕(하느님의 빛)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게 하고, 하느님을 향한 지향성을 회복시킨다. 인간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하느님을 향한 본래의 갈망은 더욱 순수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정결은 단순한 억압이나 금욕적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려는 능동적 사랑의 태도로 변화한다.

넷째, 정결은 다시 침묵을 더 깊게 만드는 순환적 구조를 가진다. 마음이 정화되고 하느님만을 향하는 단순성에 이를수록, 침묵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 사욕과 분심이 줄어든 마음은 외적 침묵뿐 아니라 내적 침묵(inner silence)을 가지게 되며, 이는 억지로 노력해서 유지하는 침묵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지는 고요의 상태가 된다. 결국 정결은 침묵을 더 깊게 하고, 깊어진 침묵은 다시 정결을 단단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수도 전통에서 정결과 침묵이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방유룡 신부의 침묵 영성은 정결과 침묵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수이며, 침묵 속에서 사욕을 분별하고 거부하지 못하면 면형무아, 즉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태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의 영성에서 침묵은 단순한 수도 규범이 아니라 “내적 정결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었다. 침묵을 통해 사욕은 해체되고, 마음은 하느님을 향한 단일한 사랑으로 정리되며, 결국 정결의 영성은 내적 통합과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간다.

VI.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과 결론

VI.1. 현대인의 영성: 침묵과 정결의 요청

오늘날의 사회는 전례 없이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 놓여 있다.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은 인간의 내면을 산만하게 만들고, 자아를 분산시키며, 고요한 영적 성찰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침묵의 영성은 단순한 수도적 규율을 넘어선 치유적, 통합적 길로 제시된다.

침묵은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상처 입은 내면을 하느님 앞에서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다. 외적 침묵은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이며, 내적 침묵은 영적 감각을 다시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 정결 또한 단순한 성적 순결을 넘어서, 마음과 삶을 하느님께만 향하게 하는 영적 집중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침묵과 정결은 고립이나 소외의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준비이며, 존재 전체를 새롭게 배열하는 영적 실천이다.

VI.2. 수도자와 평신도를 위한 정결 실천의 가능성

침묵과 정결은 수도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방유룡 신부가 강조한 영성은 엄격한 수도원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신자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 소명으로 열린다.

수도자는 고요한 환경 속에서 완덕오계, 침묵십계, 대월삼칙 등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빛을 받는 데 전념한다. 그러나 이 정신은 평신도에게도 적인 삶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하루의 일정 속 짧은 침묵 시간을 정하거나, 외부 정보의 절제를 실천하는 일상적 선택들 속에서, 영혼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특히, 평신도 역시 자기중심적 사고, 판단, 욕망을 비우고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 정결의 본질을 살아낼 수 있다. 침묵은 소유와 통제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며, 정결은 관계 안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게 한다.

VI.3 결론: 침묵과 정결의 영성, 성화를 향하여

방유룡 신부의 침묵 영성은 단순한 수행론이 아니라, 존재론적 방향성과 궁극적 목적을 가진 하느님 중심의 삶을 제시한다. 침묵은 극기를 통해 정결을 낳고, 정결은 자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한다. “순결한 사랑을 위하여 극기와 십자가가 전제”된다.¹¹⁴⁾ 그리하여 수도자든 평신도든, 모든 신자는 점차적으로 면형, 곧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어져 간다.

114) 영가 75.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이 여정은 끊임없는 자기 비움과 자제, 순명의 삶이다. 하지만 이 길은 무기력한 소멸이 아니라, 빛과 생명이 넘치는 지상 천국으로의 초대이다. 침묵은 생명을 낳고, 사랑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운다.

이 논문은 방유룡 신부의 침묵 영성을 중심으로, 수도생활 안에서 실천되어 온 침묵과 정결의 구조와 그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영성은 단지 금욕적 규범이나 수도적 규율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전인격적 변형의 길로 제시된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침묵 영성이 현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이 실현될 수 있을지, 또 방유룡 신부의 사상을 신학적·실천적으로 더 넓은 지평에서 조명할 수 있는 통합적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VI.3. 종합 결론 -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침묵과 정결의 여정

VI.3.1. 정화의 요청과 인간 존재의 목적

방유룡 신부는 인간의 영적 여정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일치는 단순한 심리적 혹은 상징적 결합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전체에 걸친 전적 정화를 요구하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그는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는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 완덕의 요구로 해석한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보편적 성화 소명 교설과도 일치하며, 정화는 완덕의 길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된다.¹¹⁵⁾ 방유룡 신부에게 있어 성부의 완전성을 닮는다는 것은 곧 성자의 완전성을 닮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성자의 모범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정화의 과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VI.3.2. 그리스도의 모상과 정화의 본질

방유룡 신부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참된 모상이자 ‘죄와 사욕, 분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¹¹⁶⁾으로 묘사한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명을 실천함으로써 성부와 완전한 일치 안으로 들어가셨다. 반면 인간은 죄와 사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적 모순을 지닌 존재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요청은 인간에게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존재의 정화를 통한 실질적 변화를 요구한다. 방유룡 신부는 ‘성자의 완전성을 닮기’ 위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치열한 내적 정화, 곧 영적 정결의 실천을 수반한다고 이해한다.¹¹⁷⁾

115)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n.11.

116) 강론 59.7.9.

VI.3.3. 신비 세계와 침묵의 영성

방유룡 신부의 영성관에서 핵심적 전제는 하느님께서 조성한 신비 세계가 실재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이들이 이 신비 세계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영혼이 침묵의 눈을 갖지 못하기 때문”¹¹⁸⁾이라고 진단한다. 인간이 침묵을 통해 내적 감각을 정화할 때 비로소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초월적 실재, 곧 신비 창조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한 수도적 규율이 아니라, 신비 세계를 인지하기 위한 존재의 정결(정화)의 방법이다. 방유룡 신부는 이러한 침묵의 실천을 통해 영혼이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그가 말하는 ‘침묵 영성’의 핵심이다.

VI.3.4. 십자가의 신비와 화해의 창조적 전환

방유룡 신부에게 있어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것은 성자의 신비이며, 특히 십자가 사건은 하느님의 신비 창조 계획을 드러내는 결정적 순간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폐쇄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러한 인간의 부정을 오히려 화해의 도구로 전환시키신다. 따라서 십자가는 더 이상 폐쇄의 상징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성소가 되며, 인간을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 방유룡 신부는 “하느님의 축복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는다”¹¹⁹⁾고 말하며, 십자가 없이는 일치도, 완덕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VI.3.5. 침묵과 정결을 통한 인간 존재의 영적 완성

방유룡 신부는 십자가의 신비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침묵의 영성을 통해 인간 안에서 체험되어야 하는 살아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신비 창조는 본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침묵의 눈에만 보인다”¹²⁰⁾고 말하며, 침묵이 곧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는 통로임을 밝힌다. 결국 그에게서 신비 창조의 완성은 십자가의 의미를 침묵 가운데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그 고요 속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정결의 완성 과정으로 이해된다.

117)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pp.318 참조.

118) 강론 59.8.26.

119) 강론 61.11.30.

120) 강론 59.6.21.

VII. 끝마치는 말

수도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 깊이 갈망하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게 느껴진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 간다. 그러나 과거 침묵 속에서 만나 뵈었던 하느님께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변화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지금에 와서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는지를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방유룡 신부님께서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 위해 생겼으니, 우리 본은 사랑이요, 목적도 사명도 사랑일세”라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수녀회에 입회한 이후 매일 아침 기성 음악을 들으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사랑으로 시작하며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작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특히 수도자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오랫동안 고민하며 찾아가게 되었다. 그 여정 속에서 ‘침묵’과 ‘정결’이 수도생활에서 얼마나 본질적인 덕목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 두 덕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길임을 알게 되었다.

수도자인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물 위를 걸어가듯, 세상적 가치와 편안함을 따라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 침묵과 정결을 받아들이는 삶은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다. “넓은 문은 파멸로 이르지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끈다.” 침묵을 실천할수록 몸과 마음과 정신이 점차 밝아지고, 하느님의 빛을 더 선명히 보게 되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사욕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깊은 행복을 경험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곧 천국의 시작이며 하느님과의 일치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참행복이며, 수도생활의 목적임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나를 수도자로 불러주셨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큰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주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은 잠잠해진다.”

오늘의 세상에서 수도자가 주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은 침묵과 정결의 삶이다. 바로 이 길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내가 평생 따라야 할 사랑의 길이다.

참고문헌

1. 가르시아 파레데스, 『정결-독신,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옮김, 성바오로 출판사, 1999.
2. 이숙자, 2021, 『면형무아의 길』, 순교의맥.
3. 조남희, 1995, “수도생활을 관점으로 한 정결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가톨릭대학대학원
4. 최현식, 2018, 『참된 행복을 위하여』.
5. 최준배, “성 베네딕도 규칙서”에서 나타난 침묵의 영성 -RB 제6장과 RM 제8.9장 비교분석 토대로-, 석사논문, 대구가톨릭 대학 대학원, 신학과, 2011.
6.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12, 『영혼의 빛』.
7.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회현』, 2021.
8. 馮樹允, 2015, “그리스도교적 성이해와 정결, 석사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9. 교황청 교리서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 1992.10.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10.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11. 교황 비오 12세, 회칙, 거룩한 동정 생활, 1954.3.25. 수도생활에 관한 교회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88.
12.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1964.11.21. 강대인 옮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2.
13. 주교회의 성서위원회(편),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14.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1965.12.7. 강대인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